

함께하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2025 정기회원총회



- ◆ 때: 2025년 1월 31일(금) 오후 7:00
- ◆ 곳: 함께하는거창 사무실



www.gcngo.org

참여와 자치의 지역공동체
함께하는거창

50136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7길 5, 2F

전화 055-942-1117

팩스 055-943-1170

전자우편 cham1117@hanmail.net

누리집 <http://gcngo.org>

공동대표 인사말

다시 총회를 맞이하며

상임대표 신 용 균

요즘 시절이 많이 수상하여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살아생전 다시 이와 같은 일을 보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발표 이후 한 달 넘게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랐다가 두려웠다가 걱정되었다가 마침내 수치스러워지는 감정의 흐름이었습니다. 아마 회원님들께서도 저와 비슷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상도 무너져 도저히 책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40여 년 전 대학 때 읽었던 책이 떠 올랐습니다. “역사가와 세계혁명”이라는 책인데, 서양최근세사 수업 교재로 썼던 책입니다. 아직 저는 그 책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탐구당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문고판으로 세로 글씨에 한문이 섞여 있는 책입니다. 이미 종이가 낡아서 누렇게 변했고 냄새도 진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한스 콘이라는 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 학자는 민족주의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던 인물입니다. 체코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나중에 미국에서 교수를 지냈습니다. 이 책은 그의 회고록입니다. 그는 1차세계대전 때 군대에 나가 러시아와 싸우다가 포로가 되어 시베리아에서 5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문명과 야만의 사이의 껍질이 얼마나 얇았던 것인가?”

딱 지금 제 심정입니다. 내란이 빨리 종식되어야 할 터인데, 벌써 1달 열흘이 지나도록 혼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대의 쿠데타를 저지시킨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쉽게 진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역사 속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실패한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9.

상임대표 신용균



2024년 결산보고

- 회계연도:2024년 1월 1일~12월 31일(단위:원)

1.자 본 현 황

자 산		부채와 자본	
보통예금	143,094	차입금(-통장)	0
적금(퇴직위로금)	5,400,000	퇴직위로금	5,400,000
보증금 & 예비비	20,000,000	자 본 금	20,143,094
합 계	25,543,094	합 계	25,543,094

2.2024년 회계별 수입·지출 현황

수 입		지 출		잔 액	
일반회계 (사무국)	17,489,213	일반회계 (사무국)	19,745,505	일반회계 (사무국)	5,543,094
				작권모	3,544,161
합 계	17,489,213	합 계	19,745,505	합 계	9,087,255

3.일반회계(사무국) - 전년도 대비 수입

수 입 (2023년도)			수 입 (2024년도)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회비수입	전년도 이월금	8,980,425	회비수입	전년도 이월금	7,954,386
	회비수입	17,705,000		회비수입	17,485,000
	후원금(사무국)	0		후원금(사무국)	0
	후원금(연구소)	0		후원금(연구소)	0
	후원금(작권모)	0		후원금(작권모)	0
기타수입	이자수익	5,672	기타수입	이자수익	4,213
	차입금	0		차입금	0
	잡수입	2,087,500		잡수입	0
	임차보증금	0		부대비용	0
수입합계		28,778,597	수입합계		25,443,599

4.일반회계(사무국) - 전년도 대비 지출

지 출 (2023년도)			지 출 (2024년도)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인 건 비	활동비	14,400,000	인 건 비	활동비	14,400,000
	상여금	300,000		상여금	300,000
	퇴직위로금	1,200,000		퇴직위로금	1,200,000
	복리후생비	8,600		복리후생비	8,790
사무유지비	건물관리비	3,600,000	사무유지비	건물관리비	2,400,000
	기기구입비	5,000		기기구입비	550,000
	사무용품비	35,920		사무용품비	156,780
	세금과 공과금	5,050		세금과 공과금	400
	소모품비	20,900		소모품비	0
	수선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300,100		수도광열비	187,730
	통신비	353,851		통신비	324,825
사 업 비	도서인쇄비	400,000	사 업 비	도서인쇄비	450,000
	발 송 비	135,020		발 송 비	101,080
	분 담 금	200,500		분 담 금	261,500
	사 업 비	1,059,270		사 업 비	604,400
	회원활동비 (경조금)			회원활동비 (경조금)	
	회 의 비	0		회 의 비	0
	출장연수비			출장연수비	
사업외비용	잡 비		사업외비용	잡 비	
	예비비			예비비	
	현 금	0		현 금	
지출합계		22,024,211	지출합계		20,945,505

5. 계정과목 설명

구분	계정과목	내 용
수 입	회비수입	회원 회비 수입
	후원금(사)	사무국 정기, 부정기 후원금
	후원금(연)	교육연구소 후원금
	사업수익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
	이자수익	예금통장 이자 수익
	차 입 금	-통장에서 빌려온 돈(부채)
	잡 수 익	수입항목이 없는 수입
	전년도 이월금	지난해 장부에서 넘어 온 현금
지 출	급 여	상근 실무자 급여, 활동비
	상 여 금	상근 실무자 상여금
	퇴직위로금	상근 실무자 퇴직 적립금
	복리후생비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
	건물관리비	사무실 월세
	기기구입비	각종 기자재 구입비
	사무용품비	사무용품 구입비
	세금과 공과금	정부, 자치단체에 납부한 세금
	소모품비	쓰레기봉투,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
	수 선 비	자산 유지, 보수 비용
	수도광열비	상하수도세, 전기세, 냉난방 비용(기름 등)
	통 신 비	전화, 인터넷, 문자메세지 발송 비용
	도서인쇄비	소식지 등 인쇄비, 복사비, 도서 구입비
	발 송 비	소식지 등 각종 우편물 발송비, 택배비
	분 담 금	다른 단체와 연대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사 업 비	각종 사업비용
	회원활동비	회원 송년회 등 회원활동을 위한 비용
	회 의 비	회원총회, 각종 회의 개최 경비
	출장연수비	교육, 출장에 필요한 비용
	잡 비	기타 계정과목이 명확하지 않은 지출
	차입금 상환	-통장 상환 금액
	예 비 비	예비비
현 금	현금	

● 자산변동 현황(2024년 12월 31일 현재)

자 산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
보통예금	3,754,386	143,094	-3,611,292
적금(퇴직위로금)	4,200,000	5,400,000	1,200,000
예비비(보증금 및 정기적금)	20,000,000	20,000,000	0
합 계	27,954,386	25,543,094	-2,411,292

부채와 자본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
차입금	0	0	0
퇴직위로금	4,200,000	5,400,000	1,200,000
자 본 금	23,754,386	20,143,094	-3,611,292
합 계	27,954,386	25,543,094	-2,411,292

·보통예금 : 매년 12월 31일 기준 통장 잔액.

·실무자 퇴직위로금 : 540만 원 적립.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및 정기적금 : 20,000,000원.

(보증금 : 5백만 원, 정기적금 : 1천5백만 원)

차입금 : 없음.

·자본금 : 2023년에 비해 2,411,292원 감소.



2024년 사업보고

『함께하는거창』은 군의원의 활동력을 제고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자, 그 일환으로 우선 2021년 상반기부터 거창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까지 총 7회의 거창군의원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함께하는 거창 홈페이지(www.gcngo.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상반기 거창군의회 의정활동 평가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 함께하는거창

자료 : 거창군의회 홈페이지 최근회의록

분석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6월 30일(제275회 ~ 제279회)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cngo.org/?contr=2024_1_assembly

- 1) 본 평가는 2024년 상반기에 거창군의회가 개최한 제275회 ~ 제279회에 대하여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 제공된 최근회의록 자료를 토대로 얻은 결과이다.
- 2) 본 결과 값은 서로닷컴이 웹사이트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여 『함께하는 거창』에 제공하였고, 『함께하는 거창』은 11명의 거창군의원의 데이터를 1명씩 업로드하여 직접 확인하였다.
- 3) 본 결과 값은 최근회의록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의원의 직책 및 담당과에 따른 기회 차이를 고려치 않았다. 예를들어 위원장 등은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발언총량은 다소 늘어나지만 가치비율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의장은 상임위원이 아니고 분과별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출석횟수가 적고 발언총량이나 가치발언 등에서 낮은 점수를 얻을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
- 4) ‘가치발언 문장수, 대군수지적 문장수’ 값은 인공지능이 모든 의원의 데이터를 동일한 조건에서 판단하고 빅데이터를 빠짐없이 체크 한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지닌다.
- 5) 함께하는 거창』은 앞으로 인공지능을 더욱 발전시켜서 거창군의원의 업무평가를 더욱 세밀하고 공정하게 분석하여 거창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다.

2 거창군 업무추진비 엑셀 파일로 공개

『함께하는거창』은 2023년 12월 18일 성명서를 통해 거창군 업무추진비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요구했다. 주요 성과로 엑셀 파일 형식 도입과 공개 범위 확대를 이끌어 내며 군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앞으로도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성명서 주요 내용

1. 문제점 지적:

- 공개 지연: 2023년 기준, 군수·부군수의 업무추진비는 1분기 내역만 공개. 선도적 지자체의 월별 공개와 큰 차이.
- 형식 문제: 거창군은 계산이 어려운 이미지화된 PDF 파일로 공개. 선도적 지자체는 엑셀 파일로 명확한 합계 제공.

2. 주요 요구사항:

- 월별 빠른 공개: 업무추진비를 매월 1개월 이내 업로드.
- 구체적 사용 내역 포함: 항목별 사용 내역 및 총액 명시.
- 엑셀 파일 형식: 군민들이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파일 형식 변경.

성과

- 『함께하는거창』의 요구로 거창군은 업무추진비를 엑셀 파일로 변경.
- 대상 범위 확대: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부서장(과장·읍장·면장)까지 모든 업무추진비 포함.

결론

『함께하는거창』은 투명하고 건강한 지방행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군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앞장설 것임.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대출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이용자 불편 사례를 근거로 시스템 수정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S/W 오류는 없었으나 직원의 실수가 문제였다고 답변하며, 국립중앙도서관에 기능 개선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공문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대출 시스템 오류 수정요청

거창군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서적 대출 시스템의 오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이용자가 자신이 대출하지 않은 책을 대출했다는 누명을 쓰고 40여 분간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결국 CCTV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CCTV 조사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담당자가 도서관 대출 시스템 오류를 발견하여 최종적으로 이용자는 누명에서 벗어났지만,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당혹함과 신뢰성 파괴로 인한 괴로움을 느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서적 대출 시스템에서는 담당자가 대출자 이름을 검색하면 그 사람이 대출한 서적 목록이 출력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서적 대출을 하기 위해 대출할 서적과 도서관 카드를 대출 기기에 올려놓으면,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대출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검색된 사람으로 대출이 잡히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즉, 도서관 담당자가 A라는 사람을 검색하고 화면을 리셋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B라는 사람이 책을 대출하려고 할 때 B의 대출할 서적이 A의 대출이 되어 버리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때 도서관 담당자는 대출자를 의심하여 대출자를 당황스럽게 하고 CCTV까지 확인하는 심각한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에서 대출하지 않은 사람한테 대출했다고 하고 CCTV 조사 후에도 그 사람이 자동대출기 앞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대출자를 의심하여 대출자는 40여 분간 분통을 터트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시발점은 바로 대출 프로그램의 오류입니다.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도서관 담당자에게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 아무리 많은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언제든지 실수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런 사건은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대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멀쩡하게 잘 작동하던 대출 카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오류가 났던 대출 카드로 다시 테스트한 결과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서관 대출 프로그램 사용에 있어서 이런 사건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방치하면 선량한 국민 누군가는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대출 시스템은 거창군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도서관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당사자 측의 말에 의하면,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프로그램 관리자가 도서 대출 프로그램 개발업체 측에 오류에 대해 알리고 수정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청 사항을 제시합니다.

1. 거창군은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의 서적 대출 시스템 개발업체에 공문을 보내 시스템의 오류를 신속하게 수정할 것을 요구할 것.
2. 거창군은 도서관 대출 시스템 개발업체가 프로그램 수정에 미온적이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담당자의 잘못을 탓한다면 중앙도서관에 보고하고 함께 대응할 것.

위와 같은 요청 사항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거창군의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01월 10일

답변서

수신 : 함께하는 거창

제목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대출 시스템 오류 수정요청에 대한 답변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함께하는 거창-A-024-0100호 (2024.1.10.)와 관련하여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대출 시스템 오류 수정요청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붙임 답변서 1부. 끝.

주무관 박재형, 도서관담당 이영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답변서>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서관 이용 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해서, 친절하게 응대하고 면밀히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원인께서 착오를 하신 것처럼 과잉 대응을 하여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문의해 주신 도서대출S/W와 관련하여 면밀히 재검토해 본 결과 당시 S/W 오류는 없었으나, 직원이 도서 대출을 하는 과정 중 착오(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도서대출S/W의 오류가 아니더라도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S/W의 근본적인 기능 개선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1월 17일 관련 내용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안하였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각 시군 도서관에서 기능 개선을 요청받아 일정 기간마다 개선 패치를 진행하며, 정확한 패치 시점은 현재로서는 미정이나 개선 반영이 후 별도 유선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 겪으신 불편을 밑거름 삼아 더욱 노력하고 좋은 서비스로 보답해드리는 한마음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마음도서관(055-940-8470)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제안 요청 공문 1부.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군 스포츠센터의 체육시설 개선을 제안하며 설문조사 결과와 군민 의견을 바탕으로 수영장 확충, 장애인 시설 마련, 야외 운동기구 개선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거창군은 군 단위에서 수영장 규모 확대가 재정적·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답변하며, 수영장 증축 계획은 없음을 밝혔다.

제안서

거창군 스포츠센터 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목적

거창군 스포츠센터는 거창읍 내 체육시설로써 다양한 운동을 즐기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스포츠센터의 체육시설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설문조사 결과 요약

■ 골프연습장 재건축에 대한 찬반 의견

찬성: 33%

반대: 67%

■ 골프연습장 규모에 대한 의견

현재 그대로 10라인 유지: 67%

10라인 추가 증축: 33%

■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체육시설 종목

파크골프: 32%

족구: 21%

기타(수영, 골프, 축구, 야구, 배드민턴, 농구, 테니스, 국궁): 10% 이하

■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체육시설 종목

수영: 33%

기타(골프, 배드민턴, 테니스, 야구, 풋살장): 11% 이상

■ 스포츠센터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

- 거창 체육협회 임원진과 시민단체가 거창의 체육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 등을 의논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협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 아동, 청소년 중심 체육시설(아동, 청소년 중심 수영장 등), 체육 관련 시험 대비 시설과 인력(진주나 대구 등 도시에서 수강) 의논 등을 제안.
- 특수체육 교육센터도 제안합니다.
- 야외 운동기구에 가림막 설치 요망(비, 바람, 눈, 이슬, 서리, 부식방지 등)
- 골프연습장 증축해 주세요.
- 골프장 진입도로 노면 부드럽게 해 주세요.
-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설치해 주세요.
- 황톳길을 만들어 주세요.
- 수영장을 확충해 주세요.
- 거창 군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 주세요.
- 군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회원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합니다.

3. 제안 내용

3.1 협회 주관 설문 및 심층 조사

거창 체육협회를 주체로 스포츠센터 관련 설문 및 심층 조사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3.2 토론회 개최

체육협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거창군민과 체육시설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협의합니다.

3.3 아동, 청소년 중심 시설 개발

아동, 청소년 중심의 체육시설과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거창군 내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개발합니다.

3.4 특수 체육 교육센터

특수 체육 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 및 특수 교육이 필요한 군민들의 운동 환경을 지원합니다.

3.5 골프연습장 재건축 및 규모 조정

군민의 반대 의견을 고려하여 골프연습장의 재건축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다양한 계층의 군민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6 부족한 체육시설 보완

수영장 확충(특히 어린이 수영장 확충) 및 기타 체육 종목에 대한 시설 보완을 통해 군민들의 운동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3.7 스포츠센터 시설 개선

야외 운동기구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눈, 비가 올 때도 운동할 수 있도록 보완 및 골프장 진입도로 노면 개선을 통해 군민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킵니다.

장애인 시설 공간을 마련하여 모든 군민이 시설을 공평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향토길 조성으로 걷기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운동기구로 군민 혜택 강화를 통해 스포츠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4. 결론

거창군 스포츠센터는 지역 체육시설의 중심지로서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체육협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거창군민과 체육시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신중히 검토하여 스포츠센터의 시설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 제안서를 통해 거창군청에서는 스포츠센터의 향후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답변

거창군은 함께하는 거창의 제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수영장 증축 및 확장 계획

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유는 군 단위에서 수영장 2개를 가진 곳은 없고, 기존 수영장을 크게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군 단위에서 국토비로 건축할 경우 규모의 제한이 있고, 수영장은 25m 이상 라인을 만들 경우 군비로만 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증축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5 서흥여객 횡령 비리

내부자 고발로 서흥여객에서 횡령 사건, 국토부 지원금 미수령, 직원 급여 과다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거창군 교통담당은 횡령 사건과 국토부 지원금 미수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으며, 서흥여객의 급여 문제와 내부 사건은 사기업의 사안으로 거창군이 관여할 수 없음을 밝혔다.

서흥여객 내부자 고발 현재 퇴사자 함거에 고발 :

2달 전에 횡령 사건이 있었고 그 사람이 책임지고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퇴사를 하지 않았다.

서흥여객 직원들 실수로 국토부 지원 자금 10억을 받지 못해 군비를 낭비했다. 서흥여객 직원 급여가 지나치게 높다.

사무국장 거창군에 문의 :

거창군의 지원은 어떻게 되나? / 거창군은 어떤 관리를 하나?

횡령사건이 있으면 거창군이 관여하는가? / 직원 급여 측정에 관여하는가?

거창군 건설교통과 교통담당(버스, 택시 담당) 김태진 주무관 :

서흥여객에 내용을 확인해 봤지만 횡령 사건은 없었다.

거창군은 서흥여객에 대해 매년 재정 용역을 통해서 확인하고 문제가 없어야 보조금 지급을 하기 때문에 횡령사건에 대해 숨길 수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다.

국토부 지원금 10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할 만한 건은 전혀 없다.

직원 급여 인상이나 내부 횡령 사건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서는 사기업이므로 거창군에서 직접 관여할 수 없다.

6 거창군 보행환경 개선 방안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군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행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문제로 상점 앞 상품 진열, 노면 불량, 광고물, 에어컨 실외기, 노점상, 차량 주차 등 보행로 침해를 지적하며, 보행로 명확화, 교육·홍보, 법적 규제 강화, 장날 차 없는 거리 운영 등 개선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군민 건강과 안전,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건기 좋은 거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 서론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도시 교통 계획에서 종종 무시되거나 간과되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하며 보행권은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이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조성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관광객 증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접근성, 건강과 피트니스, 경제적 이점, 지속 가능성,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적 가치, 안전과 보안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보행은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 위한 가장 접근성이 높은 교통 수단이다. 짧은 거리 이동에서는 보행이 다른 교통 수단보다 더 빠르고 경쟁력이 있다. 또한, 보행은 일상적인 운동 활동으로 건강과 피트니스를 촉진한다. 비용 효율적인 교통 방법으로 보행은 연료 및 교통 요금, 주차비 등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보행은 지속 가능한 이동 방식으로 친환경적이다. 자동차 대신 보행을 선택하면 대기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보행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연결성을 촉진시키며, 도시의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더불어 보행은 안전한 교통 수단으로서도 중요하다.

‘함께하는 거창’이 1년 동안 거창읍내 보행로를 조사한 결과 거창군의 보행로는 상품 진열, 물건 적치, 광고물 설치, 에어컨 실외기 설치, 노점상, 자동차(오토바이, 자전거 포함) 주차 등으로 보행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간이 많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 거창군의 보행자 교통 사망 사고를 보면 2021년에 2건, 2022년에 2건, 2023년에 3건이 발생했다. 소도시에서 이는 결코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없으며 보행환경에 더욱 적

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을 암시한다.

거창군 보행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행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즉, 상점 앞부터 차도까지 중에 어디까지가 사유지인지 어디까지가 보행로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 거창군에 문의를 했으나 담당 공무원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거창읍내 상점 앞 보행로에 설치된 것들이 보행로에 설치된 것인지 사유지에 설치된 것인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태이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거창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창군이 하루속히 보행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보행로를 표시하여, 군민들에게 홍보와 교육을 통해 깨끗한 도시, 누구나 걷고 싶은 친환경 도시 거창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이번 우리의 조사와 연구가 거창 보행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조사 기간 및 방법

거창시내 보행환경 실태조사 조사 기간 및 방법

1. 조사 기간 : 2023년 5월 1일 ~ 2024년 4월 30일

2. 조사 목적 및 활용 방안

조사 목적: 보행환경 분석 및 개선 방안 수립,

활용 방안: 거창군 보행환경 개선 방안 제안.

3. 조사 환경

계절 및 날씨 고려: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의 보행환경 평가

주요 행사: 전통시장 장날 보행환경 변화

주요 조사 시간: 오전, 오후, 피크타임

4. 조사 방법

4.1 직접 관찰

보행자의 이동 경로, 행동 패턴, 어려움 등 직접 관찰.

체계적인 관찰 기록을 위한 사전 준비 (관찰 항목, 기록 방식, 사진촬영 등)

4.2 설문조사

대면 설문: 보행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및 경험 수집

비대면 설문: 구글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

5 자료 분석

거창경찰서 정보공개 청구 자료.

거창군 정보공개 청구 자료.

기존 연구 자료, 통계 자료, 정책 자료 등 분석

보행 환경 관련 연구, 정부 통계, 지역 자료 등 활용

2. 거창 시내 보행환경 실태조사

1) 중앙로 주변 보행권 조사, 문제점, 개선 방안

<조사 구역>



① 내용 : 평일, 주말로 분류해서 조사함.

② 코스 : 거창중학교 ~ 3교 S-o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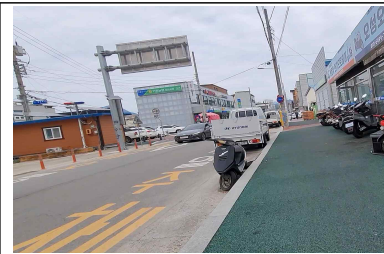
■ 노면 불량

- 문제점: 보행로의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 유아차나 노인들의 실버카,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차 운행이 어렵고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음.(안전 문제, 도시 미관 방해)
- 개선방안: 노면 정비, 안전한 보행로 확보, 거창군의 적극적 관리
- 사진: 솔약국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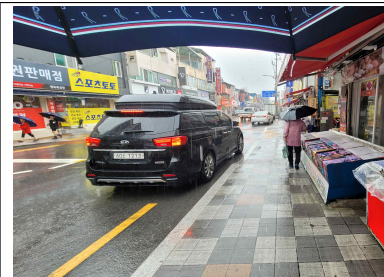


■ 상품 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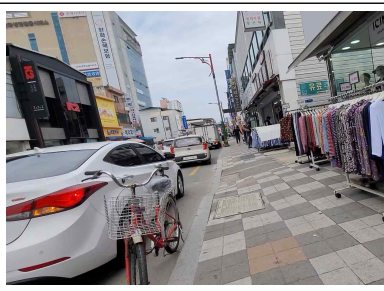
- 문제점: 상점 앞 보행로에 진열대를 설치하여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음.(보행로 공간 부족, 안전 문제, 도시 미관 방해)
- 개선방안: 보행 공간 확대, 안전한 보행로 확보, 거창군의 적극적 관리, 적극적 홍보
- 사진: 중앙로 농협 대동지점 주변



- 문제점: 상점 앞 보행로에 진열대를 설치하여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음.(보행로 공간 부족, 안전 문제, 도시 미관 방해)
- 개선방안: 보행 공간 확대, 안전한 보행로 확보, 거창군의 적극적 관리, 적극적 홍보
- 사진: 중앙로 전통시장 주변



- 문제점: 상점 앞 보행로에 상품(옷 등)을 세워두어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음.(보행로 공간 부족, 안전 문제, 도시 미관 방해)
- 개선방안: 보행 공간 확대, 안전한 보행로 확보, 거창군의 적극적 관리, 적극적 홍보
- 사진: 중앙로 전통시장 주변



●문제점: 상점 앞 보행로에 상품(과일 등)을 세워두어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음.
(전통시장)

(보행로 공간 부족, 안전 문제, 도시 미관 방해)

●개선방안: 보행 공간 확대, 안전한 보행로 확보, 거창군의 적극적 관리, 적극적으로 홍보

●사진: 중앙로 전통시장 주변



■ 광고물

●문제점: 상점 앞 보행로에 광고물을 세워두어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음.(보행로 공간 부족, 안전 문제, 도시 미관 방해)

●개선방안: 보행 공간 확대, 안전한 보행로 확보, 거창군의 적극적 관리, 적극적으로 홍보

사진 : 거창농협 대동지점 주변



●문제점: 상점 앞 보행로에 입간판을 세워두어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음.(보행로 공간 부족, 안전 문제, 도시 미관 방해)

●개선방안: 보행 공간 확대, 안전한 보행로 확보, 거창군의 적극적 관리, 적극적으로 홍보

●사진: 중앙로 전통시장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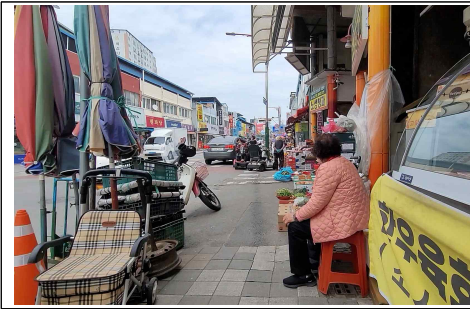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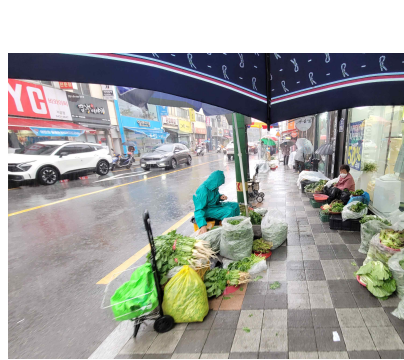


■ 노점상

●문제점: 보행자 도로에 노점상이 무분별하게 상품(농산물 등)을 진열하여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음. 특히 장날은 매우 심함.(보행로 공간 부족, 안전 문제, 도시 미관 방해)

●개선방안: 보행 공간 확대, 안전한 보행로 확보, 거창군의 적극적 관리, 적극적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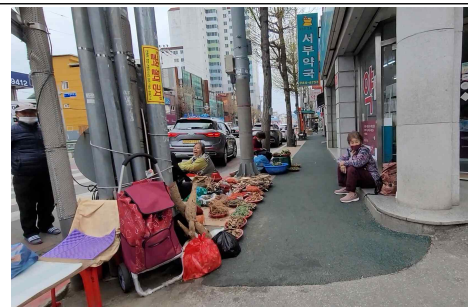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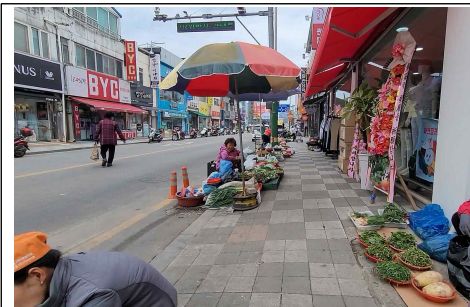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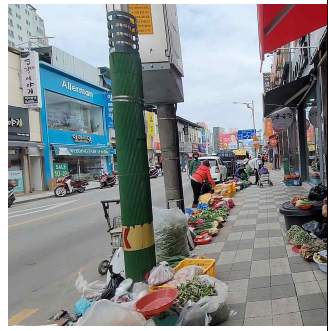
●사진: 중앙로 전통시장 주변(하단사진 포함)



●문제점: 보행자 도로에 노점상이 무분별하게 상품을 진열하여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음. 심지어 차도에 진열대를 설치하고 판매하고 있음. 특히 장날은 매우 심함.(보행로 공간 부족, 안전 문제, 도시 미관 방해)

●개선방안: 보행 공간 확대, 안전한 보행로 확보, 거창군의 적극적 관리, 적극적 홍보

●사진: 중앙로 전통시장 주변(하단사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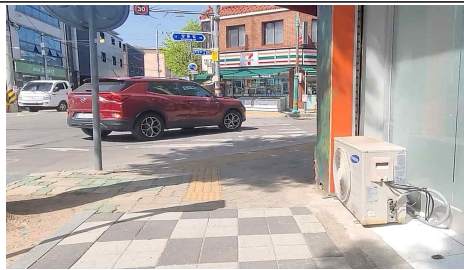


■ 에어컨 실외기 설치

●문제점: 에어컨 실외기를 보행로에 설치하여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음. 일부 실외기는 열전환 환기(바람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작동시켜 더운 바람이 보행로로 나와 보행에 방해를 주고 있음.(보행로 공간 부족, 안전 문제, 도시 미관 방해)

●개선방안: 열전환 바람막이 의무 설치, 보행 공간 확대, 안전한 보행로 확보, 거창군의 적극적 관리, 적극적 홍보

●사진: 중앙로 거창우체국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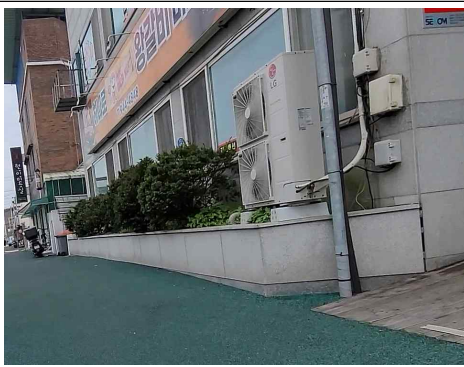
●사진: 중앙로 상동 세븐일레븐 사거리 주변



●사진: 중앙로 거창우체국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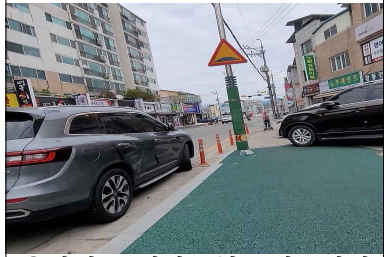
●사진: 중앙로 농협 대동지점 주변



●사진: 거창농협 대동지점 주변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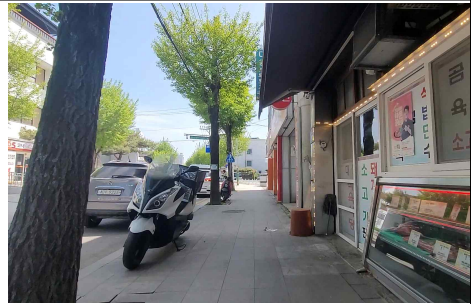
- 문제점: 보행로에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를 주차하여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음.(보행로 공간 부족, 안전 문제, 도시 미관 방해)
- 개선방안: 보행로에 주차하는 자동차를 단속하고 오토바이, 자전거는 가로수 사이에 일자 형태로 주차하도록 라인을 표시(보행 공간 확대, 안전한 보행로 확보, 거창군의 적극적 관리, 적극적 홍보)



● 사진: 거창농협 대동지점 주변



● 사진: 중앙로 거창우체국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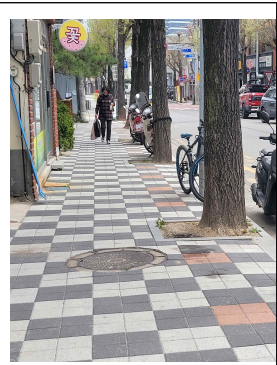


● 사진: 거창우체국 주변

■ 중앙선 없이 흠뻑수일 주차 구역

상동약국부터 풀조명까지와 동양의료기부터 현이미용실까지 중앙선 없음.

- 문제점: 중앙선을 지우고 흠뻑수일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해당 주차 지역의 오토바이 자전거는 주차할 곳이 적당치 않아 보행로에 주차함.(보행로 공간 부족, 안전 문제, 도시 미관 방해)
- 개선할 점: 오토바이, 자전거는 가로수 사이에 일자 형태로 주차하도록 라인을 표시.(보행 공간 확대, 안전한 보행로 확보, 거창군의 적극적 관리, 적극적 홍보)



중앙로는 거창읍 중심도로로서 가장 복잡한 도로이다. 특히 장날의 경우 보행로에 상품을 진열하는 상점들이 많고 노점상까지 많아지면서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주차와 합쳐지면서 위험도가 매우 높아진다.

- 2) 아림로 주변 보행권 조사, 문제점, 개선 방안
- 3) 거창대로 주변 보행권 조사, 문제점, 개선 방안
- 4) 강변로 주변 보행권 조사, 문제점, 개선 방안
- 5) 강남로 주변 보행권 조사, 문제점, 개선 방안
- 6) 거열로 주변 보행권 조사, 문제점, 개선 방안
- 7) 창동로 주변 보행권 조사, 문제점, 개선 방안

아림로부터 창동로까지 보행권 조사, 문제점, 개선방안은 함께하는 거창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www.gcngo.org/?contr=BoardReadgcngo&id=10790&boardname=dataroom>

3. 조사 결과 : 보행권 침해 내용

1) 상점 앞 상품(물건) 진열(적치)

1. 개요

본 보고서는 거창군 내 주요 보행로와 인접한 상점 앞 상품 진열 및 물건 적치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단, 거창읍 내 보행로는 상점 앞 사유지와 보행로가 정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상점의 건물 앞부터 차도까지를 모두 보행로로 규정한 상태에서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무단으로 상품을 진열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그 밖에 보행로를 작업장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유모차, 실버카, 휠체어 등의 이용자를 위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2. 조사 결과

① 중앙로 거창로터리부터 대동로터리까지 남쪽 구간 중에 스펀지, SS패션, 명동의류, 풀마트, DC마트, 비와이씨(BYC), 정훈청과, 모이롤론, 유명의를류, 거창축산물공판장, 노상청과, 현대청과, 옛날통닭, 팬텀, 트라이(TRY), OK 이.미용 재료 상점 앞 보행로에 상품 진열이 되어 있었고 거창우체국 앞 상동슈퍼 앞에는 자판기가 보행로에 설치되어 있었다. 북쪽 구간 중에 비와이씨(BYC), 돌비스

- 트(TORBIST), 루이카스텔 상점 앞 보행로에 상품 진열이 되어 있었다.
- 대동로터리부터 거창중학교 앞 사거리까지 남쪽 구간 중에 알톤스포츠, 오성오토바이, 현대기계전기, 새한그래픽광고, 동부공구 앞에는 작업 물품들이 적치되어 있었고 북쪽 구간 중에 도너킹 옆 중앙로 195-1 주택 앞에 박스 등 재활용품들이 보행로에 방치되어 있고 동양의료기 앞에 실버카가 전시되어 있었다.
- ② 아림로 거창교부터 법원사거리까지 구간에는 뚜레쥬르 앞에 상자들이 적치되어 있었고, 몬나니네 앞 보행로에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 ③ 거창대로 중앙교부터 북부사거리까지 구간에는 아림농약사, 복순이의류아울렛, 대풍농약종묘사, 광민농산, 성원천막사, 거창의료기, 아이스크림할인매장, 거창원에 앞에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 ④ 강변로 창동교부터 아림교까지 구간에는 강변얼음과일 앞에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효성(모타)전기 앞에 물건 적치가 있었으며 그 밖에 이원의료기, 거창농산과 같이 상점 앞 물품은 있으나 공간이 넓고 보행로인지 사유지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 ⑤ 강남로 푸르지오부터 창동교까지 구간에는 거창오일뱅크, T, 신라냉동공사, 한양공구, 2교남시, 거창공구 앞에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었다.
- ⑥ 거열로 북쪽 보행로 중에 개봉로터리부터 북부사거리까지 구간은 보행로와 사유지 구분이 어려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부사거리부터 거창농협하나로마트까지 구간에는 대성설비, 종합공구.철물, 제비표페인트, 삼성청과, GS25, 훈이오토바이자전거, 거창농협하나로마트 앞에 상품 및 물건 적치가 있었다. 남쪽 보행로는 스마트홈, ALTON 전기자전거점 앞에 상품이 진열되어 있고 대진오토바이 앞에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고 M헤어아트 앞에 빨래건조대가 놓여 있었으며 거창불닭 앞에는 평상이 놓여 있었다. 북부사거리부터 개봉로터리까지 구간은 한반도 정미기, 거열로 230번지 앞 보행로에는 박스와 재활용품들이 적치되어 있었고 화성종합농자재 앞 보행로에는 상품과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었다.
- ⑦ 창동로 동쪽 구간에는 가람 철근.철강, 천상의 정원, 한성티앤아이, 부산철망 종합건재, 서진기전 앞에 상품 및 물건이 적치되어 있었고 배테랑 앞에 넓은 평상이 설치되어 있었다.

3. 주요 문제점 분석

- ① 중앙로, 아림로, 거창대로, 강변로, 강남로, 거열로, 창동로 등 다수의 상점 앞 보행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즉, 상점 앞에서 차도까지 중에 어디까지가 보행로이며 어디까지가 상점 사유지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상점 주인은 어디까지 상품을 진열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이것을 감독해야 할 거창군 공무원도 어디까지 사유지인지 몰라서 감독

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② 중앙로, 아림로, 거창대로, 강변로, 강남로, 거열로, 창동로 등 다수의 보행로에 상점들의 상품이 진열되어 있거나 물건들을 적치하고 있었고 보행로를 작업장으로 이용하는 상점도 보였다.

③ 이러한 보행환경에서는 첫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상품 진열, 물건 적치로 인해 보행 공간이 좁아져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보행로가 작업장으로 이용되면서 작업 도구나 자재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 높아지며,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더 크게 위험하다.

④ 둘째, 교통 혼잡 및 주민들의 불편 및 불쾌감을 초래한다. 보행로 점유로 인해 보행자들이 차도로 넘어가거나 혼잡하게 움직여 교통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좁은 골목길 등에서는 혼잡이 더 심화된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불편해지고 불쾌감을 초래한다.

⑤ 셋째, 불법 행위 및 무질서를 조장할 수 있다. 일부 상점의 불법적인 보행로 점유가 다른 상점들의 유사 행위를 유발한다. 이로 인해 시장 전체의 무질서 조성 및 관리 어려움이 발행한다.

⑥ 넷째, 지역 이미지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관광지로서 거창의 이미지 손상을 초래하고 안전하지 못하고 불편한 환경으로 인해 관광객 감소로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개선 제안

① 보행로의 명확한 표시: 거창읍내 주요 보행로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은 보행로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규정도 없고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행로 이용에 관해서 주민에게 교육하고 홍보하고 단속해야 할 공무원도 어디까지가 상점 사유지이고 어디까지가 보행로인지 알지 못한다. 또 이를 지켜야 하는 상점 주인도, 이용하는 주민도 보행로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그저 따라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거창군 보행환경의 가장 급선무는 보행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표시하는 것이다.

② 교육 및 홍보 강화: 보행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표시를 마치면 상점 종사자 및 주민에게 보행로 불법 점유의 위험성 및 법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행로 이용 문화 및 상호 존중 정신에 대한 홍보 활동도 필요하다. 지역 언론 및 방송 매체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③ 법적 규제 강화 및 집중적인 단속: 교육과 홍보 후에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집행하고, 불법 점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점유 사례 공개 및 홍보를 통해 효과적인 억제력을 이행한다.

5. 추가 제안

- ① 보행로의 명확한 규정과 표시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보행로를 무조건 넓게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상점들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주고 조금 좁더라도 반드시 보행로는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 ③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해 보행로의 양질을 유지해야 한다.

그 밖에 아래 내용은 함께하는 거창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2) 노면 불량

3) 광고물

4) 에어컨 실외기 설치

5) 자동차, 오토바이, 킥보드, 자전거 주차

6) 노점상

7) 장애인

4. 결론

1) 종합계획

2) 연구용역

3) 장날 차 없는 거리

홈페이지 바로보기 주소:

<http://www.gcngo.org/?contr=BoardReadgcngo&id=10790&boardname=dataroom>

7 2024년(FY2023) 거창군 재정 운용 AI 평가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2024년 처음으로 AI를 활용하여 2024년(FY2023) 거창군 재정분석 자료를 평가했다. 37개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세입 감소와 재정자립도 저조 등 거창군이 주의를 기울이고 추진해야 할 항목들을 확인하였고, 관광 활성화,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교육·문화·스포츠 산업 육성 등을 통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 받았다. 이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거창군 재정 운용 평가를 더욱 세밀하게 해 나갈 예정이다.

[분석방법]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군수의 재정력을 제고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자, 그 일환으로 2024년(FY2023)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거창군 재정분석 자료를 토대로 AI 평가를 실시하고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1) 거창군 재정분석자료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2024년(FY2023) 거창군 재정분석 자료를 AI에 맡겨, 주요 항목별로 일반인이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고, 개선 및 관리 방안을 제시받았다.

2) 함께하는 거창』은 앞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거창군수 재정 운용 평가를 더욱 세밀하고 공정하게 분석하여 거창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다.

3)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 보고서 자료는 다음 해 년 말에 제공된다. 예를 들어 2024년 결산 내용은 2025년말 또는 2026년 초에 업로드된다. 따라서 2024년 결산 내용은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에 발표된다.

거창군 주요 항목별 재정 운용 및 개선 방안 SI 분석

2024년(FY2023) 거창군의 주요 항목별 재정 상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세입 결산 분석

1. 개요

거창군의 2023년 세입 결산액은 11,435억 원으로, 최근 3년간의 세입 추이를 보면 2021년 11,017억 원, 2022년 11,741억 원, 2023년 11,435억 원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6%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감소는 지역 경제 상황, 인구 감소,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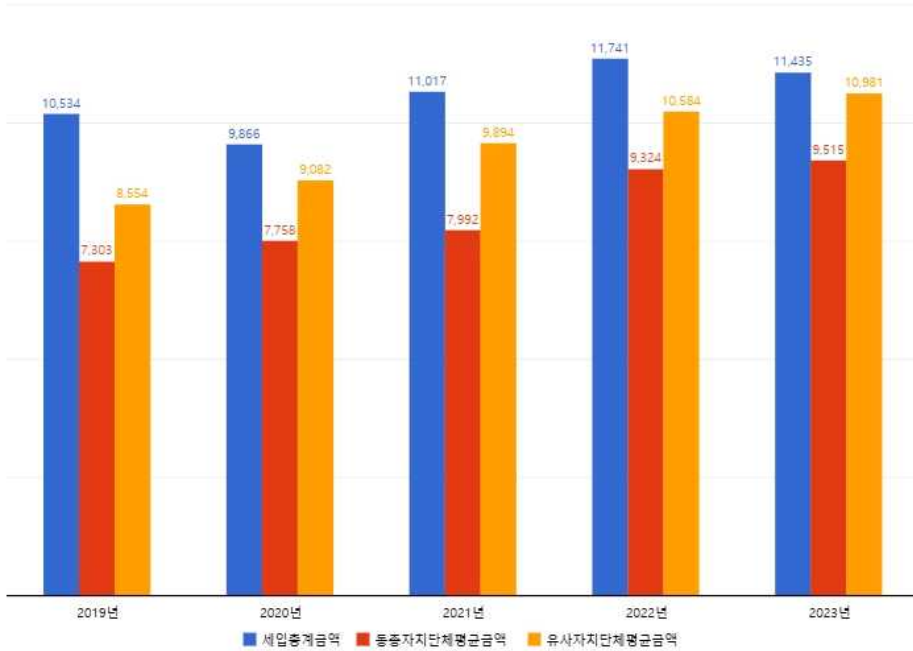
2. 동종 및 유사 단체와의 비교

- 동종 단체 평균: 9,515억 원
- 동종 단체 최고: 18,960억 원
- 동종 단체 최저: 4,153억 원
- 유사 단체 평균: 10,981억 원

거창군의 세입 결산액은 동종 단체 평균(9,515억 원)과 유사 단체 평균(10,981억 원)보다 높으며, 동종 단체 최고치(18,960억 원)보다는 낮다. 이는 거창군이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주요 분석 결과

- 세입 감소: 2022년 대비 2023년에 약 306억 원(2.6%)의 세입 감소가 발생했다. 이는 지역 경제의 둔화, 인구 감소,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축소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재정 건전성: 동종 및 유사 단체 평균보다 높은 세입 결산액을 기록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인다.
- 세입 구조 분석: 세입의 주요 구성 요소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비율을 분석하여, 특정 항목의 의존도가 높은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거창군의 특색에 맞는 세입 개선방안 및 모범사례

1. 관광 자원 활성화를 통한 세입 증대

거창군은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등 국립공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입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 구체적 방안:
 - 계절별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로 관광객 유입 촉진
 -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 관광 인프라 개선 및 홍보 강화

• 모범사례: 전라남도 여수시는 '여수밤바다'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 개발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연간 관광객 수를 1,300만 명 이상으로 증가시켰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함께 연간 약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

2.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세입 증대

거창군의 주요 농산물인 사과, 딸기, 포도 등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 구체적 방안:
 -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
 -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및 판로 확대
 - 농업인 교육을 통한 품질 향상 및 브랜드화

• 모범사례: 경상북도 의성군은 '의성마늘'의 가공품 개발과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연간 매출을 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이 평균 30% 증가하였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3. 교육 도시로서의 특성을 활용한 세입 증대

거창군은 다수의 고등학교와 대학이 위치한 교육 도시로서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외부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 구체적 방안:
 - 교육 관련 박람회 및 세미나 유치
 - 학원 및 교육 시설 유치 지원
 - 교육 관광 프로그램 개발

• 모범사례: 충청북도 청주시의 오송생명과학단지 는 교육과 연구 기관을 집적화하여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였다. 이를 통해 연간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관련 일자리도 5,000개 이상 증가하였다.

4.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세입 증대

거창군은 국제연극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세입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 구체적 방안:

- 지역 예술인과 협업하여 공연 및 전시 기획
- 문화 축제의 브랜드화 및 연례 행사화
- 문화 관광 상품 개발 및 판매

• 모범사례: 전라북도 전주시는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연간 20만 명 이상의 관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에 약 3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이를 통해 전주는 문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였다.

5. 스포츠 및 레저 산업 육성을 통한 세입 증대

거창군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스포츠 및 레저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여 세입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 구체적 방안:
 - 산악 자전거, 등산 등 레저 스포츠 대회 개최
 - 캠핑장 및 글램핑 시설 확충
 - 스포츠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홍보 강화

• 모범사례: 강원도 평창군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여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관광객 수가 30% 이상 증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은 거창군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각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과의 협력,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피드백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 수정을 병행해야 한다.

종합 분석 결과와 개선 방안 실행 전략

거창군의 세입 분석 결과, 동종 및 유사 단체 대비 안정적인 재정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세입 감소 추세는 경계해야 할 사안이다.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5가지 전략은 모두 거창군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각 전략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다음의 조치가 필요하다.

1. 종합적 접근 전략 수립:

각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이를 연도별 목표와 연계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의 독특한 자연과 문화를 강조하는 브랜딩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홍보팀을 구성한다.

2. 주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공청회와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피드백을 수렴한다.

3.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각 전략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4. 외부 자원과의 협력:

중앙정부의 지원, 민간 투자,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자원을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 모델을 도입한다.

5. 우선 순위 설정과 자원 배분:

거창군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재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거창군은 현재의 강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세입원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거창군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한다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세출 결산 분석부터

.....

37.성인지 결산 현황 분석

거창군 재정 종합평가 보고서

거창군수의 재정 운용 평가 점수까지

자료는 함께하는 거창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재정자립도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답변

거창군 재정자립도 관련하여 거창군청에 전화를 하였으나 담당자 답변이 원활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하 정보공개 청구 내용 -

안녕하십니까?

거창군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거창군의 시민단체인 <함께하는거창> 입니다.

저희는 거창군의 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거창군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거창군 재정자립도를 보면, 경남 시군 18개와 본청 중에 2024년 7.94%로 19위, 2023년 8.51%로 16위, 2022년 8.12%로 16위, 2021년 7.77% 18위, 2020년 8.88%로 15위로 경남에서도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거창군의 재정 건전성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1. 거창군의 주요 재정 수입원 및 지출 항목
최근 5년간 주요 재정 수입원별 규모 및 증감률
최근 5년간 주요 지출 항목별 규모 및 증감률
경상남도 내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 자료
2. 거창군의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예산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향상을 위한 단기 및 장기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 계획
관련 사업의 예산 규모 및 재원 확보 방안
3. 거창군의 재정 운영 및 감독 관련 내부 규정 및 지침
재정 운영 및 감독 관련 조례 및 규칙
재정 관련 내부 지침 및 매뉴얼
재정 운영 및 감독 업무 담당 부서 및 직책
4. 기타 거창군의 재정 상황과 관련된 자료
본 청구와 관련된 기타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

이용 목적:

저희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거창군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거창군 답변>

1. 귀 단체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접수번호-12680453호로 요청하신 정부공개 청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기획예산 담당관(☎055-940-3052)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청구내용 및 결정

1) 거창군 주요 재정 수입원 및 지출항목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에거 공개중 (<https://www.lofin365.go.kr>)

2) 거창군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예산 : 정보 부존재

3) 거창군의 재정운영 및 감독 관련 내부 규정 및 지침

가) 재정 운영 및 감독 관련 조례 및 규칙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공개중 (<https://www.elis.go.kr/locgovalr/locgovCIAlrList>)

나) 재정관련 내부 지침 및 매뉴얼 : 부존재

다) 재정운영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및 직책 : (부서) 기획예산담당관(예산담당) / (직책) 담당관, 담당주사, 주무관

4) 기타 거창군의 재정 상황과 관련된 자료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에거 공개중(<https://www.lofin365.go.kr>)

8 2024 경상남도 책임의료기관 공동심포지엄

2024년 7월 11일,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부경남 중증 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으며, 함께하는 거창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종성 사무국장은 해당 내용은 영상으로 제작되어 거창방송 유튜브에 업로드되었고, 회원들에게 문자로 링크가 안내되었다.

주제 : 서부경남 중증 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일시 : 2024년 7월 11일(목) 13:30~16:30

장소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교육관 2층 대강당

참석자 : 이종성(함께하는 거창 사무국장)

영상 제작 후 거창방송 유튜브에 업로드

회원 문자로 유튜브 링크 안내

유튜브 보기 : <https://youtu.be/kD73zjh4uJU>

9 거창군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함께하는거창』은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거창군 통합관제센터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민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 관련자 처벌, 조직 문화 개선, 통합관제센터 운영 개선, 군의 책임 있는 사과와 신뢰 회복을 강력히 요구했다.

성명서

거창군청 통합관제센터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전현직 근무자 14명이 기소 의견으로 무더기 송치된 것은 군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사

안으로,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공공기관이 군민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 자원을 악용한 심각한 윤리적 문제이다.

거창군청 통합관제센터는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0억 5천여 원을 들여 설치된 시설로, 여기서 다뤄지는 정보는 군민들의 사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매우 민감한 사항들이다. 그런데 이 공적인 시설을 이용하여 특정 개인의 차량 이동 경로 등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사찰하고 유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찰 건수도 몇 년에 걸쳐 수만 건에 달한다고 전해지면서 군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뿐인가? 지난해 연말, 거창군에서는 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한 회식 자리에서 여경을 대상으로 한 ‘수영복 심사’ 등의 성희롱성 발언이 일어나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 사건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창군청의 조직 문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왜곡되었는지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의 가해자들과 관리자들의 관리 부실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공공기관이 군민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 자원을 남용한 심각한 윤리적 문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철저한 진상 규명 및 관련자 처벌: 이번 사건의 모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찰을 당한 당사자들에게 사찰 사실을 고지하고 정중히 사과하라. 사찰에 가담한 관련자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관리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을 요구한다. 아울러, 거창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와 대응 조치를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2. 조직 문화 및 인식 개선 교육: 거창군은 공직자들의 윤리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조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 강화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공포하라.

3. 통합관제센터 운영 개선: 개인정보 유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관제센

터의 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라. CCTV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 민감한 정보 보호를 위한 다중의 관리 감독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라.

4. 거창군의 책임 있는 사과와 신뢰 회복 조치: 거창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군민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거창군에서 발생한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지역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공공기관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군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거창군은 우리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진지하게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9월 3일

10 거창군 화장장 10만 평에 관련하여

거창군 화장장 부지로 남하면 대야리 일대가 선정되었으나, 추가 임야 매입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군은 감정평가 후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으나, 군의회는 이미 공유재산심의를 통과시킨 상황이다. 화장 시설 구축 비용은 총 233억 원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거창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보도자료

거창군수 공약 사업인 거창군 화장장 부지로 남하면 대야리 1228-46번지 일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정 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야마을회에서 최초로 A, B의 소유로 된 53,748㎡, 16,258평을 신청했으나 추가로 A씨의 소유로 된 주변 임야 279,637㎡, 84,590평의 매도확약서를 제출해서 거창군이 개인을 위해 9만 평에 가까운 악산을 구입 한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거창군은, 현재 확정된 것은 없고 앞으로 감정평가 후에 땅 소유주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예산 부족으로 아직 감정평가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거창 군의회는 이미 84,000평에 대해 공유재산심의를 통과 시켰습니다. 따라서 거창군은 추가 임야에 대해 구입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거창 확장시설 구축 비용은 당 초 계획했던 200억에서, 33억이 추가된 233억원으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비용은 국비 45억, 도비는 없고, 군비 176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청지 토지 구입 비용은 17억 여원으로 가평가 되었고 추가 매도 해야할 임야는 4~5억 원정도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감정평가 등 준비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다음 년도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기](#)

<https://youtu.be/qes430jKdbA>

11 거창대학 통합과 관련하여

2024년 글로벌대학으로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 거창·남해대학 통합이 추진되며, 통합 절차와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거창 캠퍼스는 보건·항노화·드론 특화 학과를 신설하고 학생 수 유지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유지할 예정이다. 주요 우려로는 캠퍼스 소멸, 명칭 논의 부족, 학과 중복 등이 제기되며,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군민 의견 반영과 특성화 유지 등 8대 요구를 제시했다. 통합 명칭은 '국립창원대학교'로 결정되었으며, 2026년 통합대학 개

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영상은 거창방송 유튜브에 업로드되었다.

■ 주요 일정 소개

2024년 글로벌대학(창원대학교) 선정 절차

4월 16일 글로벌대학30 예비지정대학으로 선정

7월 28일 실행계획서 제출

8월 28일 2024년 글로벌 본지정 대학10개 대학(대학수 기준 17개교)으로 선정

10월 10일 거창대학 본관 2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대학 통합 자문위원회를 개최

10월 16일(수) 오전 10시 거창대학 다목적 강당에서 대학 통합 관련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

10월 17일 남해대학교 설명회 및 군민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11월 25일(월) 15:00 경남도립거창대학 대강당

12월 10일(화) 오후 4시 거창대학교 본관 2층 세미나실

12월 14(토) ~ 12월 17일(화) 설문조사 실시

12월 18일(수) 14:00 거창대학 본관 2층 세미나실

성명서

거창대학 통합, 지역사회 의견 반영 없이 강행할 수 없다!

거창대학, 창원대학교, 남해대학 통합은 지역 대학의 발전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절차상 문제로 거창대학의 독창성이 훼손되고 군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는 양질의 교육 보장, 명칭 논의, 학과 중복, 캠퍼스 소멸 우려, 예산 배분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통합은 통합의 의미가 없으며 거창대학의 독립성과 지역 발전 잠재력이 오히려 약화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거창대학 통합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양질의 교육 보장 문제다. 통합 후 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을 낮추어서 교

육의 질을 높여야 하며, 연구비 증액과 지역 특화 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 이는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대학 명칭 논의가 부족하다. 거창대학의 명칭 변경은 군민들의 자부심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와의 정서적 연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새로운 명칭은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

셋째, 동일 학과 중복 문제다. 창원대와 거창대 간 동일 학과를 유지할 경우, 거창대학이 창원대에 흡수될 위험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과 통합을 통해 주력 학과로 운영하고, 각 학과의 특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넷째,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거창 캠퍼스 소멸 우려가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해 통합 이후 학생 수가 줄어들면 거창 캠퍼스의 지속 가능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거창 캠퍼스의 독립적 운영과 학사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특화 학과를 신설해야 한다.

다섯째, 거창대학의 독창성 유지 문제다. 통합으로 인해 현장 실습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창대학의 특화 학과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된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

여섯째, 만학도 교육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 통합 이후 만학도와 성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2년제 학과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야간반 및 주말반을 개설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일곱째, 군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 통합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정기적인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여덟째, 예산 편성 비율이 불투명하다. 통합 이후 예산 편성에서 각 캠퍼스의 재정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배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

하나. 교수 인력을 확충하고 연구비를 증액하여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한다.

- 하나. 거창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학 명칭 결정을 요청한다.
- 하나. 동일 학과를 통합하고, 각 대학의 주력 학과로 특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 하나. 거창 캠퍼스의 독립적 운영과 학사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특화 학과를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 하나. 거창대학의 독창성과 특화된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 하나. 만학도와 성인 학습자를 위한 2년제 학과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 하나. 정기적인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해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 하나.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재정 배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2024년 11월 19일

■ 경남도립거창·남해대-창원대 통합신청서 제출

- 거창도립대 공공간호, 향노화휴먼케어(보건분야), 드론, 스마트제조 특화
- 남해도립대 관광융합, 항공·해양·방산, 미래에너지(원전) 특화
- 현재 학생규모 유지, 2~4년제 전문학사, 학사 과정 병행 다층학사제 도입
- '25년 상반기 통합인가, '26년 3월 통합대학 개교 목표
- 통합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대학 이해관계자·지역주민 의견수렴 지속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경남도립거창대학과 경남도립남해대학이 국립창원대학교와의 통합을 위한 신청서를 30일 교육부에 제출(창원대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합신청서는 통합대학 특성화 계획, 통합 후 대학운영체제 개편 계획, 학사구조 개편 계획, 연차별 소요예산, 통합되는 대학에 대한 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창원캠퍼스는 지역 소재 정부출연기관과 연합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

력산업과 연계된 방산, 원전, 스마트 제조를 중심으로 나노바이오, 수소 에너지 등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거창캠퍼스는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확장 이전 및 신설 예정에 따라, 미래 의료인력 공급과 통합돌봄 서비스체계 구축, 미래 모빌리티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공공간호·항노화휴먼케어·드론 분야 특화와 방산 분야 전공 신설 등 지역특성과 산업수요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양성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물리치료, 방사선 등 보건분야 특성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남해캠퍼스는 도내 주력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항공해양방산학부’, 휴양도시 전략과 치유관광 분야 교육 확대를 위한 ‘관광융합학부’, 원전 등 미래에너지 및 산업안전 분야 인력수요 대응을 위한 ‘에너지안전융합학부’로 특성화를 추진한다.

대학운영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통합대학 명칭은 국립창원대학교, 주캠퍼스는 창원캠퍼스가 되며 거창·남해캠퍼스의 부총장제 도입과 행정조직은 5처 1국 5본부로 개편하게 된다.

학사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통합대학은 2~3년제(전문학사)와 4년제(학사)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3개 캠퍼스, 8개 단과대학, 19개 학부, 55개 학과로 구성된다. 학생규모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며, 기존 창원대와 거창대가 운영하는 간호학과는 캠퍼스별 차별화를 통해 각각 운영된다. 한편 거창·남해캠퍼스에서도 입학자원 분석 및 지역산업과 연계를 통한 4년제 학과 전환 또는 신설이 가능해진다.

통합대학 예산은 글로벌대학30 사업비, 국고, 라이즈(RISE) 사업 등을 포함해 총 1,246억원 규모이며, 통합대학교 특성화 기반 구축에 395억원, 통합대학교 교육환경 기반 구축에 851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국립대학육성사업, 글로벌대학사업 등 지산학연 연계 강화를 통해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사업 종료 이후에도 각종 정부공모사업, 국비지원사업 등을 통해 다각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거창·남해캠퍼스의 현재

교육 수준과 인프라를 유지·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도립대 재학생을 위한 보호 계획으로는 폐지학과 재학생에 대해 통합 대학 내 유사학과 전과 허용, 유사학과 4년제 특별 편입학 규정 마련, 통합 후 5년 간 현재 장학제도 유지, 졸업 시 학적 선택권 학생 부여 등 다양한 보호 조치가 마련된다.

교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직 공무원 신분인 교원은 국가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대학회계직과 공무직,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는 창원대로 소속 전환을 통해 고용을 승계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 이후 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남도 공무원의 한시적 파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그간 경남도와 각 대학에서는 대학통합에 대한 설명과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해, 거창·남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설명회(8. 22. ~ 23.), 주민 설명회(10. 16. ~ 17.), 공청회(11. 21., 25.)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주요 의견으로는 통합 이후 거창·남해캠퍼스 학생규모 유지, 거창캠퍼스 방사선, 물리치료 등 신설을 통한 보건 분야 특성화, 성인학습자를 위한 2년제 학과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지, 출범대학의 교명 지역주민 의견 반영 등이다.

경상남도는 그간 수렴한 지역 의견을 통합신청서에 반영했다. 지난 7월에 실시한 통합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평균 78.9%*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9월에 실시한 대학 통합대학 교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평균 79.9%**가 ‘국립창원대학교’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창지역에서 별도로 1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통합 찬성 84.7%, 통합대학 교명(국립창원대학교) 동의 78.0%, 캠퍼스 명칭의 적합도는 거창캠퍼스 64.4%, 글로벌거창캠퍼스 13.1%, 국립거창캠퍼스 10.6% 순으로 조사되었다.

* 창원지역 67.0%, 거창지역 87.8%, 남해지역 82.0%,

** 창원지역 90.4%, 거창지역 73.6%, 남해지역 75.8%

경상남도는 2026년 3월에 통합대학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합신청서 제출 이후 교육부의 통합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에 대비하여 대학 자문위원, 대학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성공적인 대학통합을 이루고,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12 거창산림레포츠파크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거창군은 457억 원을 투입해 고제면 개명리에 산림레포츠파크를 조성했으며, 2024년 준공식을 개최했지만, 마운틴 코스터와 스피드 익스트림 파크는 미완공 상태이다. 마운틴 코스터 설치 업체와의 소송과 연이은 운영자 선정 입찰 유찰로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 미완공 시설의 조속한 완공, 운영 조건 재검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파크의 성공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1. 사업 개요

거창군은 2014년부터 고제면 개명리 일원에 총면적 약 32ha(약 96,800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457억 원을 투입하여 거창 산림레포츠파크를 조성하였다. 이 사업은 산림휴양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며, 다양한 레포츠 및 숙박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2. 현재 운영 상황

2024년 10월 22일, 거창군은 산림레포츠파크의 준공식을 개최하였으나, 일부 핵심 시설인 스피드 익스트림 파크와 마운틴 코스터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현재 자연휴양림 및 산림레포츠타운만 정상 운영 중이며, 마운틴 코스터 등 주요 시설은 설치되지 못한 상황이다.

3. 스피드 익스트림 파크 및 마운틴 코스터 미준공 사유

마운틴 코스터 설치를 담당한 업체가 계약과 다른 규격으로 공사를 진행하자, 거창군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해당 업체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 거창군이 승소하였으나, 업체 측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마운틴 코스터의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4. 운영자 선정 입찰 현황

산림레포츠파크의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용허가 입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차 입찰: 330,416,030원에 공고되었으나 유찰

2차 입찰: 298,000,000원에 공고되었으나 유찰

3차 입찰: 265,000,000원에 공고되었으나 유찰

연이은 유찰로 인해 현재까지 운영자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5. 문제점 분석

미완공 시설로 인한 반쪽 운영: 핵심 시설인 마운틴 코스터 등의 미완공으로 인해 파크의 전체적인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

운영자 선정의 어려움: 연이은 입찰 유찰은 운영 수익성에 대한 우려와 미완공 시설로 인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향후 대응 방안

미완공 시설의 조속한 완공: 마운틴 코스터 등 핵심 시설의 공사를 신속히 완료하여 파크의 완전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운영 조건 재검토: 운영자 선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료 조정, 지원 방안 마련 등 운영 조건을 재검토하여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홍보 강화: 파크의 장점과 향후 계획을 적극 홍보하여 잠재 운영자와 방문객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

7. 결론

거창 산림레포츠파크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현재의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고,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파크의 성공적인 운영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13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회 현황

『함께하는거창』은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이후,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역의 연대 조직인 거창비상행동을 설립하여 서울 여의도 상경 집회에 참여하고, 거창 민주광장에서 20여 차례의 집회를 개최하며 군민들과 뜻을 모았다.

특히, 우리의 목소리와 행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함께하는 거창은 집회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은 '거창방송'을 통해 지역과 전국에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함께하는거창』은 군민들과 함께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8월 7일(수) 저녁 7시 거창군청 앞 민주광장에서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윤석열 정권 퇴진 거창군민대회

9월 4일(수) 저녁 6시 30분 거창군청 앞 민주광장에서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윤석열 정권 퇴진 거창군민대회

10월 11일(수) 저녁 6시 30분 거창군청 앞 민주광장에서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윤석열 정권 퇴진 제3차 거창군민대회

11월 14일(목) 저녁 6시 30분 거창군청 앞 민주광장에서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윤석열 정권 퇴진 제4차 거창군민대회

사무국장은 서울 여의도 집회.

유튜브 영상 : <https://youtu.be/RhYntjCEDTk>

신성범 국회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

회견문

내란범죄 방조는 동조이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내란범죄에 가담하지 말고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참여하고 윤석열을 탄핵하라!

지난 7일 여의도 국회 앞은 윤석열의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로 거리를 가득 메웠다. 경남에서도 새벽잠 설쳐가며 수많은 버스가 서울로 올라갔다. 그날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외친 것은 '윤석열 탄핵'이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순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이 무산되게 만들었다. 서울과 지역 곳곳에서 그 시간만을 오매불망 기다렸던 국민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짓거리를 한 것이다. 여기에 더 참담한 것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여기에 동조한 것이다.

12월 3일 그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폭거이자 쿠데타이며 내란범죄이다. 이미 국민은 13%의 지지율로 마음속에서 대통령을 지워버렸다.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국기문란, 헌정파괴, 내란범이며 즉각 체포해야 할 대상이다. 비상계엄의 그날 밤 맨몸으로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선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구호는 '윤석열을 체포하라'였다.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던 비상계엄을 '1분 50초' 변명 담화로 넘어가려는 윤석열은 또다시 국민을 분노케 했다. 또한 탄핵 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들을 탄식하게 만들었다.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내란의힘'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다.

신성범 국회의원은 이러한 반역사적 폭주에 동참하지 말라. 국기문란, 헌정파괴, 내란범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데 함께하라. 총칼을 국민에게 향하게 한 그 순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당리당락에 빠져 국민의 안위를 내란범죄자에게 맡겨 놓을 것인가?

내란범죄 방조는 동조이다!

신성범 국회의원은 탄핵 표결에 함께하라!

내란범죄 방조는 동조이다! 국민의힘 해체하라!

국기문란, 헌정파괴,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2024년 12월 10일

거창·함양·합천·산청 윤석열탄핵비상행동

신성범 국회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 2차

회견문

국민의힘 '해체의 날' 전국 동시 다발행동

내란공범 국민의힘 즉각 해체하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 해제된 지 무려 3주 이상이 지났고, 국회 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도 2주가 다 되어가고 있다. 그 러나 아직까지 윤석열에 대한 체포,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한덕수총리 등 내란공범들이 공조하는 가운데 특검법의 처리, 헌법 재판관의 임명 등이 지체되고 있다.

'내란의 힘' 자임한 국민의힘 즉각 해체하라!

비상계엄 당시부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태는 충격적이다. 비상계엄 해제에도 대다수가 불참했을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불법적인 비 상계엄의 양태가 생중계됨에 따라, 압도적인 주권자 국민이 탄핵, 처벌을 요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반대 당론을 고집하며 첫 탄핵소추안 의결에 는 불참을, 두 번째 의결에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국정을 파탄냈던 국민의힘은 '계엄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기는커녕 친윤세력을 다시 지도부 로 선임하며 '쇄신'이 아닌 '패거리결집'을 도모하고 있다. 심지어 '내란은 아니'라는 윤석열의 황당한 변명을 그대로 반복하며, 국가수사본부와 언론 을 통해 내란공범자들의 범죄 정황이 공개되는 것을 '가짜뉴스'로 운운하며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야 말로 '내란의힘'을 자임하고 있다.

탄핵심판 절차 지연시키는 국민의힘 즉각 해체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결 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 는가 하면, 25일에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 하겠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마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임명할 수 없다'

는 기존 입장을 고집하는 가운데 25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회,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모두 불참하였다.

내란 범죄를 옹호, 지원하며 사실상 내란공범을 자임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처리'를 운운하면서 특검법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지연, 거부하겠다는 의향을 거리낌없이 밝히고 있다.

주권자 국민이 아닌 윤석열 비호와 권력투쟁만에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1년만 지나면 다 잊고 또 찍어준다'며 국민을 무시한 내란공범을 주권자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힘은 주권자들의 강력한 심판속에서 마침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내란공범 자임한 '내란의힘' 국힘당은 당장 해체하라!

2024. 12. 27.

윤석열즉각퇴진 거창산청함양합천 비상행동

14 유튜브 거창방송 소식

지난 한 해 동안 거창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 함께하는 거창은 활동의 결과와 과정을 보다 많은 군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거창방송'을 통해 주요 활동과 성과를 알리고, 군민 여러분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함께할 것이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거창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며,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유튜브 영상 제작 내용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의 시국선언 윤석열 퇴진을 요구

유튜브 영상 : <https://youtu.be/i-6qxFwZjM>

신성범 국회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

유튜브 영상 : <https://youtu.be/de2ztRWsbDI>

국민의힘 해체 촉구

<https://youtu.be/1DkiHr2GYIo>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유튜브 영상 : <https://youtu.be/xwgL14R0XqU>

거창 비상행동의 서울 여의도 집회 동행 스토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

<https://youtu.be/RhYntjCEDTk>

전봉준투쟁단 거창집회 폐정개혁 12조 외침

<https://youtu.be/PwokjSwDSp4>

거창대학 통합신청서 제출 전, 마지막 보고서 공개

<https://youtu.be/kreYz6NUuBo>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24-12-6) AI 분석

<https://youtu.be/a6oFTW7DN8w>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2024-12-9) 주요 논의 내용 AI 분석

<https://youtu.be/EcxPabj8Dy8>

거창군민대회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다

<https://youtu.be/wk37GsGxW6k>

거창비상행동 항공사고 희생자 추모, 헌정 초유의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https://youtu.be/Qqd-r6XWLUI>

그 밖에 함께하는 거창 활동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 자료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제공하였습니다.

회원 소모임 활동

푸 른 숲

우리 지역의 가까운 산과 전국의 명산을 찾아 자연과 호흡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회원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줍니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산행대장: 백철우)

■ 4월 정기산행

1. 언 제 : 2024년 4월 21일(일)
2. 어디로 : 샷갯재골(덕유산)
3. 산행코스 : 황점-->샷갯재골대피소-->황점
4. 참가자 : 김영수, 송만호

■ 5월 정기산행

1. 언 제 : 2024년 5월 26일(일)
2. 어디로 : 덕유산
3. 산행코스 : 송계사(안성)--->동엽령--->안성
4. 참가자 : 백철우, 김영수, 이기식, 윤철, 이창희, 정은주

■ 6월 정기산행

1. 언 제 : 2024년 6월 23일(일)
2. 참가자 : 김영수, 윤철, 이창희, 박성규, 송만호, 서대림, 백철우 7명
3. 산행코스 : 미래사 --> 미륵산 정상--> 미래사
4. 산행시간 : 약1시간

■ 10월 정기산행

- 1.언제;2024년10월29일(일요일)
- 2.어디로;비계산(가조)
- 3.코스;골프장 입구-->비계산-->도리
- 4.참석자 : 김영수, 방창희, 전수미, 정은주

■ 12월 정기산행

1. 언 제 : 2024년 12월 1일(일요일)

2. 어디로: 선운산, 구시포(고창)

3. 출발시간 : 고창--->선운사--->구시포

4.참석자 : 김영수, 최정애, 윤철, 이창희, 김봉은, 권문상, 송만호, 서대림, 백철우,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25년 사업 계획

2025년 『함께하는계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봅니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은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채워나가겠습니다. 『함께하는계장』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무국

- “군의원 업무평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함께하는계장』 회원들과 함께 주관적 평가도 병행해 나가겠다.
- 기본업무에 충실하며, 『함께하는계장』이 해야 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
- “군정감시 활동, 지역 정책 제안, 조직의 운영, 지역 연대”를 활성화하겠다.

■ 알 립

- 『함께하는계장』의 활동 내용을 회원들께 잘 전달하도록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잘 활용하겠다. 특히 『함께하는계장』 카톡방이나 문자로 최근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 회원 활동

- 회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등산모임 푸른숲과 작은권리찾기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 회원들의 요구, 취향에 따라 새로운 소모임 혹은 함께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겠다.

■ 후원이사회 활성화

- 재정 확보를 위해 후원이사회를 활성화하겠다.

■ 부속 연구소

- 동영상은 제작하여 『거창방송』 유튜브 채널에 등록하겠다.
 - 사업방향 : 거창지역 현황분석, 정책대안, 거창의 인물, 거창의 역사, 거창의 지리, 거창의 문화, 거창인의 작품 등, 기타 거창에 관련된 주제.
- ※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함께하는거창』 Positive 정책

-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에 좀 더 중점을 두겠다.
- 거창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하겠다.
- 투명한 기부문화 플랫폼을 구상하겠다.

■ 중점사업

- 군정감시 비판기능 강화.
- 군의원, 군수 활동평가.
- 읍내 (장애인) 보행자 조사 개선안 제안.
- 거창의 가치 있는 자료 결집(글, 사진, 동영상)

2025년 예산(안)

1. 일반회계(사무국)

(단위:원)

수 입			지 출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회비수입	회비수입	18,000,000	인 건 비	활 동 비	14,400,000
	후원금(사)	0		상 여 금	300,000
				퇴직위로금	1,200,000
		복리후생비		0	
기타수입	이자수익	5,000	사무유지비	건물관리비	240,000
	차 입 금	0		기기구입비	500,000
	잡 수 입	0		사무용품비	300,000
	전년도 이월금	7,954,386		세금과공과금	5,000
		소모품비		300,000	
		수 선 비		0	
		수도광열비		500,000	
		통 신 비		550,000	
		도서인쇄비		700,000	
		발 송 비		500,000	
		분 담 금	1,000,000		
		사 업 비	3,077,816		
		회원활동비	1,000,000		
		회 의 비	200,000		
		출장연수비	0		
		잡 비	300,000		
		사업외비용	차입금 상환	0	
			예 비 비	886,570	
수입합계		25,959,386	지출합계		25,959,386

『함께하는거창』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함께하는거창』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함께하는거창』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하여, 생활세계에서의 주권확보와 참여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실천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참여민주주의 사회의 실현과 자치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함께하는거창』의 사무소는 거창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함께하는거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운동-사업을 전개한다.

1. 주민자치 운동 : 참여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 활동
2. 자치공동체 회복운동 : 자치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
3. 공론영역 형성운동 : 생활세계의 과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리적 공론을 형성하는 활동
4. 자치언론 개혁운동 : 자치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언론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활동
5. 민주시민 교육운동 : 주민들의 주권의식과 참여의식 재고를 위한 회원 및 주민교육 활동
6. 기타 이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가입) 『함께하는거창』의 목적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제6조(삭제, 2006년 1월 17일)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함께하는거창』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함께하는거창』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함께하는거창』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함께하는거창』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
2. 『함께하는거창』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상벌) 『함께하는거창』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총회에 보고한다.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회의 포상 대상이 된다.

1. 회원으로서 본 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
2. 비회원으로서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견책 또는 경고를 통해 반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인정되는 자.
2. 이 모임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본 회에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자.
3. 위항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그 직의 수행을 중지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기 구

제1절 회원총회

제10조(지위) 회원총회는 『함께하는거창』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1조(소집) 정기 회원총회는 연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 회원총회는 재적 회원 1/5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권한 및 의결) 회원총회는 『함께하는거창』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홈페이지 또는 SNS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하고, 의결할 내용을 반드시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서면 및 문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총회에서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 회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개선(공동대표, 감사)
3.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안건

제13조 (출석) 회원은 회원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직접출석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단, 임원선출은 제외한다.

제14조 (임원개선의 절차) 임원의 선출방법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무국장은 공동대표의 합의로 임명하고 회원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단, 『함께하는거창』의 활동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해 출동의 범위와 정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2024. 1. 31 개정)

제2절 운영위원회

제15조(지위) 운영위원회는 『함께하는거창』의 일상적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련한 사항들을 의결·집행하는 기구이며, 모든 회의는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제16조(구성) 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각 회원활동기구의 대표와 사무국장 및 후원이사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확대운영위원회는 제16조의 1항의 구성원과 후원이사, 고문, 자문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장은 상임공동대표가 겸직하고, 부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1개월마다 운영위원장이 정기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확대운영위원회는 제16조 2항에 의거 구성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 1/5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아래에는 상임공동대표를 회장으로 하는 상시 회의기구인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을 선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운용 규정과 방식은 정기운영위원회의 재량으로 한다.

제1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권한) 운영위원회 및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각종 사업 및 활동의 입안과 집행
2. 회원활동 기구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
3. 운영위원 위촉, 후원이사,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4.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의 제정과 개정
5. 사무국의 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7.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20조(사무국) 『함께하는거창』의 활동을 총괄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간사, 정책, 기획, 홍보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절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회, 감사, 후원이사회

제21조(공동대표 및 상임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함께하는거창』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공동대표는 3인 이내 두고,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공동대표 호선에 의해서 1인의 상임공동대표를 선출한다.

제22조(고문) 『함께하는거창』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하고, 지도를 받기 위하여 지역의 신망 있는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23조(자문위원회) 『함께하는거창』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제24조(감사) 『함께하는거창』의 사업 및 재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후원이사회) 『함께하는거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고, 후원이사 호선에 의하여 후원이사회 회장을 선출한다.

제4절 회원활동기구

제26조(회원활동기구) 회원은 본 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회원활동 모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자발적 회원활동 모임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공식 회원활동기구로 등록되며,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① 의무

1. 활동상황에 대하여 회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활동결과에 대한 대외적 발표 및 대응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권리

1.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인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2. 활동에 필요한 회원지도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3. 필요한 대외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절 연구소

제27조(명칭 및 소속) 본 연구소는 '『함께하는거창』 부속연구소'(약칭 함께하는 연구소)라 칭하고 『함께하는거창』 산하에 둔다.

제28조(목적) 연구소는 거창과 지역의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작하고 그 결실을 결집하여 지역의 발전은 물론 균형, 행정 등 일선 현장에서의 활동 발전과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되, 본 정관의 '제2조'와 '제4조'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29조(주요사업) 연구소는 '제27조' 와 '제28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거창 지역에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 대한 연구
2. 거창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그와 관련된 전문인력 또는 단체의 연대활동
3. 학술세미나, 발표회, 강연회 등의 개최
4. 관련 연구문헌 및 자료 수집
5. 학술지 및 연구자료집 발간
6. 유관 연구소 및 학술단체들과의 공동작업
7. 그 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5장 재정

제30조(회계연도) 『함께하는거창』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 1.운영위원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당해 연도 결산(안)은 회원총회 개최 전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예.결산서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함께하는거창』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2023. 1. 31 개정)

제32조(수입)

1. 『함께하는거창』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기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2. 특별기금은 후원이사회에서 관리하며 그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할 때 후원 이사회의 결의를 따른다.
3. 특별기금의 이자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회비) 회원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정당 활동의 제한) 공동대표와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은 선출직공직에 입후보하는 경우, 정당의 주요당직을 맡을 경우 사임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라도 자동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

제35조(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36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함께하는거창』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지역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하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2023. 1. 31 개정)

부 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1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1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7월 16일 임시총회에서 2차 개정(전면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1월 21일 정기총회에서 3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6년 1월 17일 정기총회에서 4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9년 1월 20일 정기총회에서 5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2년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6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3년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7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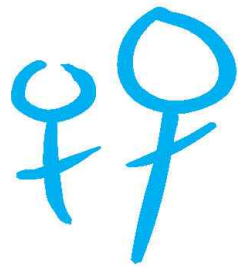
2013년 1월 28일 정기총회에서 8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7년 2월 2일 정기총회에서 9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9년 1월 24일 정기총회에서 10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23년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11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24년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12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www.gcngo.org